

트럼프 행정부 원유 증산 요구에 대한 OPEC+ 대응 사례 및 전망

- 미국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이 취임 이후 OPEC+의 원유 증산 필요성을 강조한 가운데 OPEC+는 아직 기존 계획을 고수하며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음.
 -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1월 취임 이후 국제유가 인하를 위한 자국 및 OPEC+의 원유 증산 필요성을 거듭 언급하였음.
 -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1월 취임 연설에서 국가에너지위기(National Energy Emergency)를 선언하고 임기 내 자국 원유 생산 및 수출 증대에 집중할 것을 천명
 - 이어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된 세계경제포럼(WEF: World Economic Forum)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OPEC+를 향해 생산량 증대를 통한 원유 가격 인하를 촉구하는 등 글로벌 원유 공급에 대한 개입 의지 시사
 - 특히 이 자리에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을 위해서도 유가가 현 수준 대비 큰 폭으로 인하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글로벌 원유 공급 확대와 산유국 간 공조가 필요하다고 강조
 - OPEC+는 이미 감산량을 점진적으로 축소할 계획을 갖고 있었으나 시장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증산 시점 및 속도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실정이며,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회의에서도 기존 계획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음.
 - OPEC+는 자체 감산(일일 200만 배럴)과 더불어 자발적 감산 1단계(일일 165만 배럴)와 2단계(일일 220만 배럴)를 동시에 시행하고 있으며, 이 중 2단계 감산량만 2024년 12월부터 점진적으로 완화하고자 하였으나 이마저도 지난 12월 회의에서 2025년 4월로 연기
 - OPEC+는 지난 2월과 3월 장관급 감시위원회(JMMC: Joint Ministeral Meeting Committee)에서 오는 4월까지의 감산 연장 및 이후 완화 계획 고수
- 트럼프 행정부는 첫 임기 동안에도 국제유가 상승이 우려될 때마다 OPEC+에 증산을 요구하였으나, OPEC+는 이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며 기존 감산 정책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였음.
 - 2018년 4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이란 핵합의 탈퇴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OPEC+에 증산을 요청하였으나, OPEC+는 장기적인 시장 안정과 회원국들의 재정 수익 보전 등을 이유로 수용하지 않았음.
 - 사우디아라비아 등 일부 국가에서는 감산 이행률을 소폭 낮추는 방식으로 이에 대응하였으나, 기구 전체의 전면적인 증산 합의로 이어지지는 않았음.

- 이어 2019년 3월에도 대이란 추가 제재 부과에 따른 원유 공급 감소를 우려하며 OPEC+에 대한 증산 압박을 감행하였으나, OPEC+는 감산 기조를 유지하기로 결정함.
- 다만 2020년 초 코로나19 확산으로 전 세계적인 원유 수요가 급감하자 트럼프 행정부의 중재에 따라 2020년 5월부터 일일 970만 배럴 대규모 감산을 이행한 바 있음.
- 이처럼 OPEC+는 트럼프 행정부의 세 차례 산유량 조정 요청 중 감산 요청에만 대응했으며, 당시 국제유가도 미국의 이란 핵합의 파기 등 지정학적 요인으로 변동폭이 심화되는 양상을 보였음.

표 1. 트럼프 1기 행정부의 산유량 조정 요청과 OPEC+의 대응

시기	요청 내용	국제 유가	주요 명분	대응
2018. 04~06.	증산	67.9	· 미국의 이란 핵합의 탈퇴에 따른 유가 상승 우려	기존 감산 유지
2019. 03~05.	증산	61.0	· 이란에 대한 추가 제재 부과로 인한 유가 상승 우려	기존 감산 유지
2020. 03~05.	감산	25.2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글로벌 원유 수요 위축	수용

주: 국제유가는 해당 시기 WTI 평균치임.
자료: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그림 1. 국제유가 추이



주: 1) WTI 기준임.
2) 노란색 음영은 트럼프 1기 행정부 기간임.
자료: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

- 과거 사례를 고려할 때 OPEC+가 금번 트럼프 행정부의 증산 요구를 전면적으로 수용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트럼프 행정부의 과거 증산 요구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OPEC+ 회원국들은 단기적인 외교 압력보다 장기적 재정 수익과 시장 안정성을 우선시하는 경향을 보여 왔음.
- 특히 걸프 산유국의 경우 탈석유 시대를 대비한 산업 개발을 위해 유가 부양을 통한 재정 확보가 절실한 상황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재정균형유가를 배럴당 96.2 달러(브렌트유 기준)로 평가하고 있으며, 이는 현 유가 수준(70달러 초반대)과 상당한 괴리 형성
- 지난 WEF에서도 사우디아라비아 경제기획부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 감산 요구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질문에 무엇보다 시장 안정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답변

1) CNBC, Saudi Arabia's fiscal breakeven oil price is rising fast. What will the kingdom do about it?(검색일: 2023. 3. 5).

- 이에 따라 금번 트럼프 대통령의 증산 요구에 있어서도 산유량을 미세 조정하는 방식으로 일정 부분 수용할 수는 있으나, 유가를 급격히 떨어뜨릴 만큼의 협조는 기대하기 어려워 보임.



유광호